

전력공급이 필요 없는 바이타고트(VitaGoat)

퍼스트 스텝스는 지난 8월 북한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내역과 진행상황들을 뉴스레터 가을호를 통해 후원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35,000명이 넘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매일 한 컵의 고단백 콩 우유를 급식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협력단체들도 세 곳의 주요 콩 우유 생산기지에서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후원자 여러분께도 흘러 넘쳐 지속적인 온정의 손길을 더해주시며 따라 수천명의 어린 생명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진심으로 늘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수잔 리치와 11세의 아들 헤미쉬는 최근에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2005년 9월에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헤미쉬에게는 이번이 두 번째 북한 방문이었습니다. 남포의 서쪽 항구 근처에 있는 비록 소규모이지만 새로운 협력 농장인 갈천리에 들어서 바이타고트 한대가 설치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수잔에게 있어서는 이번 방문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바이타고트 한 대에서는 매일 100리터의 콩 우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바이타고트가 이들만에 설치되었으며 전력대신 마른 옥수수 속대를 태워 보일러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잔과 헤미쉬가 방문했을 때 세 명의 젊은 남자 배달부가 10리터들이 플라스틱 통에 든 콩우유를 자전거로 갈천리의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배달해주고 있었는데(18km 떨어진 곳까지) 갈천리 농장의 관리자 이정숙씨는 이들이 좀 더 신속히 움직여서 더 많은 콩 우유를 어린이들에게 배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잔과 헤미쉬는 농장에 있는 탁아소에 들러 새참시간에 콩 우유를 마시고 있는 어린이들도 만나 보았습니다.

바이타고트는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농장에 딱 맞는 기계입니다. 북한 어디를 가나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퍼스트 스텝스는 더 많은 바이타고트를 설치할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원산에 있는 생산기지도 제 몫을 하고 있어 수잔은 무척 기뻐합니다. 이곳에는 전기로 가동되는 바이타카우가 매일 16,285명의 어린이들에게 부지런히 콩 우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협력단체들도 생산을 더 늘리기를 몹시 바라고 있습니다.

수잔은 어린이영양연구소의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논의한지 2년 만에 드디어 스프링클스(Sprinkles) 프로그램이 곧 실현되는 것에 대해 그들은 무척 고무돼 있습니다. 퍼스

트 스텝스는 75,000달러를 들여 스프링클스 150만 봉지를 구입했습니다. 스프링클스는 각광을 받고 있는 미량영양소로서, 토론토에 있는 Sick Children's Hospital의 스탠리 즐로트킨(Stanley Zlotkin) 박사가 개발한 것입니다. 북한용으로 특별 포장된 이 제품은 연말까지 도착할 예정입니다. 스프링클스는 태내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양결핍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퍼스트 스텝스는 북한 어린이들의 삶에 계속해서 진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저희는 어린이들의 성장을 도우리라고 거듭 다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어왔으며 단지 살아가기 위해 매일 투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 편지

북한의 영양결핍 아동을 돕고 있는 퍼스트 스텝스의 사역을 접한 후 노스밴쿠버의 하든 씨 가족이 “바이타고트(VitaGoat)” 기계 한 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 제조기는 현재 원산중등학교(Wonsan secondary boarding school)에서 활발히 가동 중에 있으며 매일 742명의 어린이들에게 콩 우유를 급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원산 중등학교의 강은영 원장께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아래와 같이 보내왔습니다. (부분 발췌)

“콩 우유 설비를 보내 준 선생님들께 우리 원산중등학교원 원아들과 교직원의 이름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이 보내준 설비로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품을 먹으며 기뻐하는 750명 원아들은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무슨 풍족하고 여유 있는 생활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 세계인류 앞에 후대들 앞에 그 무엇인가를 이바지 하고자 하는 그 고마운 마음 앞에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선생님들이 보내준 콩 우유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원아들 모두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겠습니다.

인사동정

신임 이사로서 오유순(Eunice Oh) 여사가 앞으로 퍼스트 스텝스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유순 여사는 한인장학재단을 통해 올해 5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밴쿠버에서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문 약사로서, 영양결핍으로 고생하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해에 대한 근심

지난 7월 북한에는 수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으며, 감자를 비롯해 대략 10만톤의 농작물이 손실 되었습니다. 여행 도중 수잔과 아들 헤미쉬는 여러곳에서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들렀던 휴게소의 한 직원이, 홍수로 휴게소 1층이 잠기게 되어서 2층으로 피신해 있는 동안 겪은 두려웠던 경험을 말해주기도 했습니다.